

금호타이어 '더블스타에 매각' 논란 재점화… 남은 시간은 1개월

# 産銀 '해외매각' 정면승부 vs 노조 '고공농성' 강력반발

채권단, 신뢰 위해 진행상황 공개  
기업가치 하락·부도 위기 등 우려  
정치권·지역사회 움직임도 변수

금호타이어의 해외매각을 놓고 채권단과 노조가 한 달 안에 간극을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채권단은 '신뢰'를 보여주겠다며 해외매각 진행상황을 공개했지만 노조는 국책은행이 지역경제를 망치려고 한다며 '비난'의 수위만 높였다.

금호타이어는 채권단의 채권단기 시한뿐 아니라 지금의 유동성 상태로는 한 달 이상 버티기가 힘들다. 그러나 채권단과 노조의 이해관계는 물론 지역사회와 정치권까지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 ◆ '해외매각' 정면대결 승부수

산업은행 등 금호타이어 채권단은 지난 2일 '더블스타'와의 매각 협상을 공식화했



지난 2일 광주 광산구 영광통사거리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에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자 회장과 곡성지회장이 올라 고공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 관련 얘기는 계속 나왔지만 더블스타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수합병(M&A)은 거래가 마무리될

때까지 서로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산업은행은 더블스타라는 매각협상 대상은 물론 구체적인 조건까지 모두 공개했다.

이대현 산업은행 수석부행장은 지난 2일 향후 처리방안을 밝히는 간담회를 통해 "이번에 금호타이어 노사가 협상을 진행하는 것을 보니 서로 간극을 좁히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에 금이 가 있었다"며 "채권단이 안에서 자꾸 얘기해봐야 안될 것 같고 일정 범위 내에서 얘기하고 투명성을 높이는게 바람직하겠다 싶어 더블스타에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울 만큼 가장 반대했던 해외매각을 애써 공식화했으니 채권단 입장에서는 정면대결이란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이와 함께 채권단은 더블스타로의 매각이 아닌 모든 방안에 대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자율협약이든 워크아웃이든 채권단 공동관리는 이미 지난 몇 년을 되돌아 볼 때

효과적이지 않다. 채권단이 또 다시 대규모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할지도 미지수다.

그간 가능성성이 높은 것으로 봤던 단기 법정관리의 일종인 프리페카지드플랜(P-플랜)도 추진이 힘들다. 역시 채권단의 과도한 신규자금 투입이 걸려있고, 중국법인을 떠나는 과정에서 국내법인이 입을 타격이 너무 크다.

실사결과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계속 기업 가치는 4600억원으로 청산가치 1조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면 청산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셈이다.

이 수석부행장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청산 판결의 가능성이 높다는 질문에 "법원이 판단할 부분이라 말하기 그렇지만 걱정스런 상상이 많이 된다"고 답했다.

## ◆ 한 달 안에 합의 가능한가

이제 남은 시간은 한 달이다. 현재 유동성 상황을 감안하면 채권단의 선택이 아

니라 최대한 가능한 시간이 한 달 안팎으로 파악됐다. 이미 직원들 월급은 연체됐고, 일부 상거래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수석부행장은 "금호타이어가 근근이 벼텨가고 있지만 한 달 이전에라도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한 달은 해보려고 애쓰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해외매각 방침이 전해지자 강경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지난 3일 노조 간부들이 고공 농성 중인 광주공장 인근 송신탑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자구안을 공식 폐기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해외매각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노조 뿐 아니라 정치권과 지역사회의 움직임도 변수다.

현재로는 노조 반대에 대한 다른 대안은 없다. 더블스타는 노조의 동의를 필요로 제시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될까… 이르면 이번주 결정

6일까지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합의 땐 다음날 개선 방안 확정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영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 비용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기본적으로 산입범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모두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산입범위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절충안이 양측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위원회는 지난 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의 2명씩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를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면 하루 뒤인 7일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개선 방



지난 달 20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중단 촉구·최저임금 1만원 보장 결의대회에서 민노총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최임위(최저임금위원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돼 있는 송판을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회의를 열고 노·사·공의 2명씩 참가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 논의를 오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면 하루 뒤인 7일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위원회는 3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 논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노동계의 어수봉 위원장 사퇴 요구 등으로 파행을 겪으면서 논의가 지연됐다.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나오면 하루 뒤인 7일 전원회의를 추가로 열어 제도개선 방

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기본과 별도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숙식비, 교통비 등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낳

게 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그동안 경영계는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고 인상 속도를 늦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16.4% 인상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고정상여금과 숙식수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통상임금과도 연계되는 문제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반발을 완화하고,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달 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한줄뉴스

▲ 육군사관학교 등 2019학년도 각 사관학교에서 뽑는 사회적 약자와 여학생 선발 비율이 전년보다 확대된다.

▲ 서울시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CCTV가 2021년까지 전량 고화질로 교체된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출소 후 첫 인수합병(M&A)에 네덜란드 자동차 반도체 전문기업 엔엑스피(NXP)가 거론되고 있어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그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있는 다스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 신한은행은 2018년 리딩뱅크를 향한 키를 '디지털 금융'으로 잡았다.

▲ 정부정책의 수혜 지수로 꼽히는 'KRX 300'이 자본시장 '백조'로 떠올랐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베트남과 싱가포르를 방문해 우리 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주거복지 등 국토교통 분야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유통업계가 본격적인 '신선식품' 대전쟁에 나선다.

▲ 식품업계가 새 먹거리 찾기에 여념이 없다. 기존의 사업구조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시장금리 상승 등 수익성 개선 기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은행들의 예대마진·순이자마진(NIM) 성장세가 견조할 것 이란 분석이 나왔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2018년 시장금리 상승 등에 힘입어 은행들의 예대마진·NIM이 상승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KB증권 유승창·이남석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채권금리 상승 등 시장금리 상승과 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라 (은행들의)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월 중 예금은행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마진은 1.89%로 전월 대비 8bp(1bp=0.01%포인트) 올랐다. 1월 말 잔액 기준 예대마진도 전월 대비 2bp 상승한 2.32%를 기록했다.

이 보고서는 "1월 예금은행 금리동향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12월에 이어 신규 취급액 및 잔액기준 예대마진이 모두 개선 추세를 이어간 점"이라며 "이는 2017년 11월 기준금리 인상 및 시장금리 상승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2018년 1분기 주요 은행의 NIM 개선에도 긍정적일 것"이라고 판斷했다.

또 "은행의 NIM 개선은 시장금리 상승

과 더불어 포트폴리오 개선에 따른 예대마진 개선 효과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 시중은행의 무원가성 자금조달 비중이 평균 20% 수준임을 감안하면 시장금리 상승은 은행의 NIM으로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김재우 연구원도 '1월 NIS(예대금리차)-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NI M 개선 기사회' 보고서를 통해 올해도 금리 환경 등에 따라 은행의 NIM 개선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을 내놨다.

한은이 발표한 가중평균금리 동향에 따르면 1월 은행 잔액기준 NIS(예대금리차)는 전월 대비 2bp 상승한 2.32%를 기록했다.

/체신화 기자 csh9101@

## 은행, 예대마진·NIM 상승세… 올해도 장밋빛 전망

〈순이자마진〉

